



## 나는 기적을 보았기에 믿는다.

하트 리듬 희망 대상

송 O 민

2021년 3월 7일은 남편의 두 번째 생일이다.

나는 평생 이날을 잊지 않기 위해 남편의 두 번째 생일이라고 정했다. 결혼이 늦는 요즘 시대에 남들보다 조금 이르다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다. 자궁이 약해 귀하게 얻은 4살 된 딸과 함께 이 정도면 나름 잘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은 사람을 참 좋아한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술자리는 더욱더 좋아하며 그 자리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이곳이 천당이구나 하며 세상 해맑게 웃는 남들이 말하는 소위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다면 남들이 말하는 몸에 좋은 음식들과 운동 정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남편의 몸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원인이 많았지만 왜 2021년 남편의 신년 계획에는 1000만 원 모으기, 대리 진급하기로 가득했을까? 남편의 계획은 '건강하게'라는 가장 중요한 말이 빠진 채 이루어졌다.

대리로 진급을 했고 진급 후 몇 주 동안 많은 사람들과 진급을 축하하며 피로가 누적되었다. 늘 바쁜 탓에 먹던 약도 소홀히 챙겨 먹었으며 결국 대리 후 첫 월급도 받기 전 남편은 변이형 협심증과 WPW증후군(심방과 심실 사이 비정상적인 전기신호 전달 통로인 부전도로가 존재하여 빠른 부정맥이 동반되는 질환)이라는 원인으로 심정지가 와서 쓰러졌다. 그때 남편의 나이는 고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젊은 나이 32이었다.

남편 회사에서 보내온 성금 봉투에는 올해 계획에 적혀있던 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있었고 나는 그 봉투를 들고 영영 울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눈앞에서 심장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다 눈에 흰 자가 가득한 채 쓰러졌다. 나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이 상황에 소리만 지르고 벌벌 떨며 남편을 부여잡았고 내 목숨 같은 자식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신 시부모님의 심정 또한 어떻게 표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무서워 울던 딸아이를 안고 맨발로 119를 기다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빨리!!”만 수십 번 외쳤던 것 같다.

그 지옥 같던 20분은 9개월이 지난 지금도 내 꿈속에서 반복된다. 그 꿈속에서 달라진 게 있다면 나는 남편 위에서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있고 조금 뒤 남편은 의식을 찾아 똑같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나름의 해피엔딩.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기에 내 안에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못해준 나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고 있었다. 남편이 평소 운동을 안 해서일까? 잦은 술자리와 스트레스로 인해 늘었던 흡연 때문일까? 하루 빼먹은 약 때문일까? 결국은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못 받아서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된 거겠지 하며 말이다.

남편은 스스로 호흡도 못한 채 수많은 기계에 의존하여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헤매고 있었다. 나는 면회도 할 수 없는 시국을 원망하고 원망하며 가끔 검사하러 나오는 남편 얼굴이나마 보고자 매일 병원으로 갔다.

어머님은 중환자실 벽에 기대어 매일 엄마 목소리 따라서 절대 길 잃지 말고 잘 찾아오라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의사선생님은 늘 어두운 표정으로 남편의 상태가 세미 코마 상태이며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만약 돌아온다고 해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무서운 이야기만 전하셨다.

힘들었다. 진짜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고통이었고 제일 힘든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채로 지나가는 시간들과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무섭고 괴로운 생각들과의 싸움이었다. 그래도 가장 힘든 건 남편이겠지.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남편에게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응원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려달라고 사정했다. 또 혹시나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낯설고 무서운 병원이 아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의 사진이길 바랐다.

나는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는다. 나는 간절했고 우리 가족들은 모두 간절했다. 그렇게 한 달이 다 되어갈 때 남편이 깨어났다.

딸의 사진을 보여주자 쭉야-하고 평소 불렀던 애칭을 입모양으로 말했다고 전해들었다.

늘 무서운 이야기만 해주시던 의사의 입에서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우리는 비로소 악몽과 같던 시간 속에서 나올 수 있었다.

9개월이 지난 우리 가족은 완벽하게 예전으로 돌아오지는 못했다. 하지만 부정맥 관련 시술과 전극도자절제술을 통해 현재까지는 심장 박동 수에 큰 변화 없이 예전처럼 잘 뛰여주는 심장에 고마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한 부정맥과 협심증은 약물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늘 하루에 먹어야 할 약을 제 시간을 지켜서 빠짐없이 먹고 있다.

남편 말로는 시술 후 예전에 있던 흉통도 많이 없어졌고 가슴 부분의 편안함이 생겼다고 이야기한다. 남편은 심정지 시간이 조금 길어 그 동안 뇌도 손상을 받았고 누워있는 동안 살이 15kg이나 빠지며 근육도 많이 굳어서 열심히 병원에서 재활을 했다. 그리고 긴 꿈을 꾸 것처럼 깨어난 현실속 조금 변해있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들은 간병인 없이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 가며 열심히 도왔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재활은 필요없고 생활을 통해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있는 이 집의 모든 것이 감사하고 소중했다

요즘 나의 일상 중 작은 행복은 남편이 내가 낮에 일할 동안 열심히 걸어가서 사 와준 커피를 마시는 것과 딸의 의사 놀이에 경험을 바탕으로 리얼한 환자가 되어 놀아주는 남





편을 보는 것이다. 내년에는 남편을 기다려주는 회사에 다시 복직해서 그렇게 듣고 싶었던 대리님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혹시나 나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일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에게도 찾아왔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싶다. 기적이 선착순처럼 정해져 있지 않지 않은가? 그럼 간절한 사람들에게 무한하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또 바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가끔은 걸음을 멈추고 내가 자는 순간 까지도 바쁘게 뛰고 있을 내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모든 인생의 계획에는 반드시 '건강하게'라는 말이 앞에 오지 않는다면 이루어진다 한들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 가족은 잠시 길을 잃어 무섭고 힘들었지만 더 단단해졌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무언가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도 반드시 '건강하게'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시길 바란다.

